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중심

군산 강소특구, 공공기술 연계 성과창출 위한 2년차 사업 준비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가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2년차 사업 준비에 나섰다.

시는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군산새만금 전기차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R&D 특구인 군산 강소특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유망기술을 이전받아 기술사업화로 기업이 성장하고 재투자해 지역 경제에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사업비 72억원을 지원받아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비전 선포식

유망 공공기술 발굴, 기술이전 사업화, 지역 특화성장 지원사업 등 관내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추진, 특화분야 중심의 기업 성장과 창업, 연구소기업육성했다.

시는 강소특구 내 기업 유치와 연구소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재산에 감면 조항을 신설했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강소특구 육성 전담인력을 배치, 기술핵심기관과 공조해 사업을 수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공기술이전 사업화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인 연구소기업 7개사를 설립하고 2월 중 2개사를 추가 설립할 예정이며, 특구재단 전문가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군산 소재 기업 15개사에 기업당 2억 2천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R&D(제품화, 양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특구재단 주관의 혁신성장 IR(Invest Relations) 경진대회에서 군산 강소특구 육성 기업 2개사가 참여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고 5억원의 투자유치를 지원받는 등 1년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가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영농활동 지원에 나선다.

일손 부족, 공동급식으로 해결

익산시, 농번기 영농활동·급식 준비 병행 부담 덜어

익산시가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영농활동 지원에 나선다.

시는 여성농업인의 급식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나선다. 올해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0개 마을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은 마을에 조리원을 두고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을회관 등과 같이 마을 공동 취사 및 급식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농업인 및 농업인 가족 20인 이상 급식에 참여하는 농촌지역 마을 및 도시지역 마을 중 농업인이 80%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 마을로 선정되면 마을당

32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급식기간은 연 40일 이내로 마을별 농번기를 감안해 상·하반기 분할 운영 등 마을 여건에 맞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오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마을회관 등에서 급식이 어려운 경우 공동급식을 대신해 도시락 배달 및 식당 이용으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농촌 일손이 많이 부족해진 만큼 공동급식이 영농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농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재보선창으로 밀려드는 제3의 물결... 활력 되찾아

군산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온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5년차를 맞아 그 성과가 가시화되며 군산시 일원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특히, 주요거점시설 중 하나인 재보스토리 1899(구 수협아판장 리모델링)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협업의 결과물로 1층에는 수제짜짜특화사업장(떡거리정착과), 2~3층에 콘텐츠크토리(문화예술과)가 조성되면서 이상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각광받으며 재보선창 일원의 부활을 이끌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 주도로 설립한 재보선창 협동조합은 수제짜짜특화사업장과 연계한 맥아바 상품 개발과 판매로

지역 소득을 창출하는 전북 최초 도시재생형 예비 마을기업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지역 거버넌스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 측면에서 우수정책 사례로도 인정받고 있다.

그 밖에도 한화부지 내 도시숲 조성, 신영시장 일원 공동덕장과 공공창업공간 조성사업 등도 성공적으로 완료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선급 리모델링, 광장 조성사업, 터새로이지원센터 조성사업, D행복주택 건설사업 등도 공정에 맞게 진행중이어서 추후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성되면 찾아올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이기간 군산시 도시재생과장은 "올

해는 남아있는 세부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사업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물리적인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자생조직들을 적극 육성하고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마중물 사업의 투자 효과와 혜택이 그 지역에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5년간 2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282.5억이 투입되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한국선급, 구)수협아판장, 재보선창, 한화부지, 신영시장으로 이어지는 중앙동 일원의 핵심 유희부지를 거점개발해 관광객 유입기반을 확대하고 쇠퇴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7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 짬뽕특화거리, 전국민 먹거리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군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 및 먹거리 관광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짬뽕 특화거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동령길 인근에 짬뽕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총 20억 4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및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해 신규입점자 유치를 힘쓰고 있다.

현재 빈혜원을 비롯한 기존업소 2개소, 신규입점업소 4개소 입점으로 총 6개소가 짬뽕특화거리 내 영업 운영 중이다.

시는 짬뽕 특화거리 내 입점업소에 한해 재정지원 사업(임대료 및 식자재 구입비) 및 신규 입점업소에는 시설비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 짬뽕특화거리 전선지중화사업(500m)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로 깨끗한 거리조성을 계획하고 있으

며, 짬뽕 특화거리를 주제로 한 짬뽕페스티벌 개최 및 매달 특색있는 이벤트 등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 홍보를 할 예정이다.

문다해 위생행정과장은 "짬뽕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군산의 짬뽕거리가 관광명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